

함께하는

FTA

January 2013'
www.ftahub.go.kr vol. 8'



세계 8위 무역 강국 코리아의 저력
FTA 날개 달고
무역 2조 달러 앞당긴다

2013년 중국경제와 FTA 협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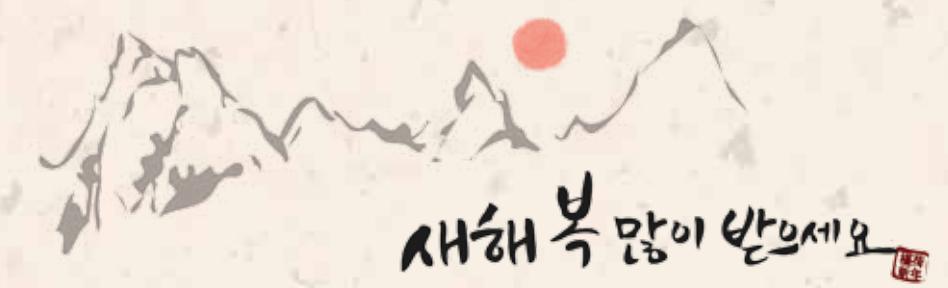




주부가 꿈꾸는 2013 대한민국
“FTA로 건강한
먹거리가
풍성해지길 바래요”



박정진 주부(34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과 5살 딸 두 아이를 둔 주부 박정진입니다. 10여 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했다가 지금은 아이들 키우며 간간히 CS(Customer Satisfaction) 강사, 승무원 코칭 강사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주부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짬짬이 일을 손에 놓지 않으니 사람들이 ‘9단 주부’라고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주부님들에게 배울 것이 많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과 베트남, 홍콩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지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각 나라의 변화가에서 K-팝을 들을 수 있었고, 친숙한 한국 브랜드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죠. 나라 안에서는 말로만 듣던 ‘한류’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우리 가족 모두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류도 결국 국가간의 문화적인 교류로 이뤄진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필두로 요즘은 우리 음식과 옷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가 전세계로 서서히 전파되고 있고,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세계에서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기는 현장을 미디어로 접할 때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변화’는 주부이다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실감하게 됩니다. FTA는 정치적인 이슈이겠거니 했다가 요즘은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간의 자유무역 협정인 FTA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경제와 정책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수입산 유통과 농산물 등 먹거리와 의약품 등도 관련이 있다 보니 아이를 키우고 가정경제를 꾸리고 있는 주부로서 아무래도 더욱 관심이 가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요즘 마트에 나가보면 미국산 오렌지 주스 등 품목들이 눈에 띄게 착한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칠레산 뿐만 아니라 미국산, 유럽산 와인 등도 큰 폭의 가격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산 브로콜리가 입고되지 않아 미국산 브로콜리를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큰 가격 차이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2013년은 새로운 대통령께서 새 정부를 힘차게 꾸려나가실 테지요. ‘가계 재무장관’인 주부로서의 바람은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FTA 체결국이 더 늘어나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장바구니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건강한 먹거리, 칭찬의 문화가 넘쳐나서 우리 국민 모두의 얼굴에서 주름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주부님들 파이팅하시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장현주 기자

CONTENTS

- 04 2013 신년사
땡큐 FTA, 파이팅 코리아
- 06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조건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FTA로 헤쳐 나가야

커버 스토리

FTA 날개 달고 무역 2조 달러 앞당긴다

- 08 무역 1조 달러 시대 성과와 과제
FTA 효과, 어려울 때 더욱 빛났다
- 10 2013년 무역환경 어떻게 되나
동아시아 통상 변수 적극 대응해야
- 12 무역 1조 달러 시대, FTA 활용 수출기업들
품질에 가격경쟁력 더하니 수출 '훨훨'
- 14 특집 인터뷰: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경쟁력 키울 터
- 16 인포 그래픽
무역 1조 달러 시대, 2013년 대한민국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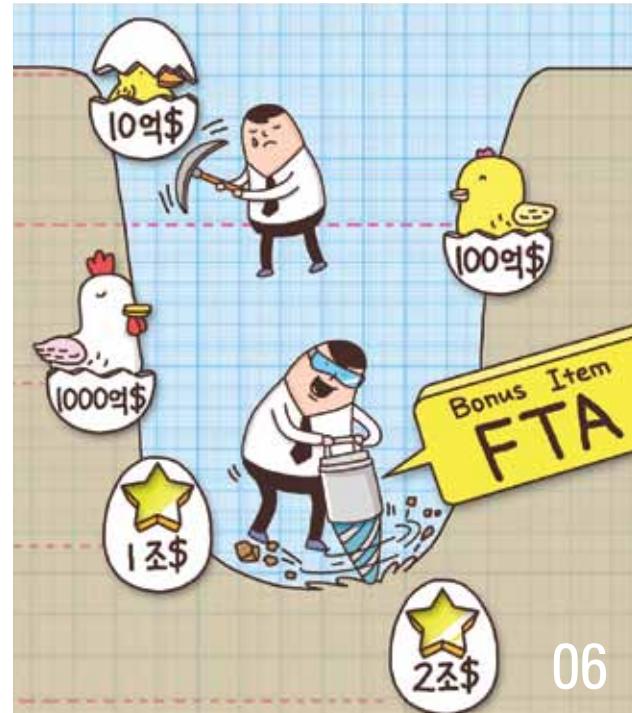
페이지 일러스트 허라미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3년 1월 7일(통권 8호)
발행처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책본부
발행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6



12



20

2013 January vol.8
www.ftahub.go.kr



24

스페셜 리포트

- 30 중국 경제와 FTA 협상 전망
2013년 중국경제의 향방과 중국의 FTA 전략

FTA 아카데미

- 32 FTA 활용 탐구생활
애매할 땐 '특례규정' 활용하라

FTA 뉴스

- 34 기업 FTA 활용도 제고 위해 팔 걷어붙여

컬쳐 윈도우

- 36 트래블
미리 가보는 FTA 체결국 터키&콜롬비아
- 38 2013 한류 키워드
2013년 글로벌 한류 키워드가 궁금해?
- 40 별별랭킹
한국 8위, FTA 필요성 입증

FTA 즐기기

- 18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중간재 규정
부품 직접 생산한다면 '중간재' 활용하라
- 19 카툰
함께하는 FTA! 다시 뛰는 대한민국!
- 20 부산FTA 활용 지원센터 탐방
“3개 전문기관이 공조하니 시너지도 3배죠”
- 22 중소기업 천하: 아모록스
FTA로 가격경쟁력 '쑥쑥'…수출 드라이브 걸다
- 24 피플: 현대상선 신입사원 김혜린 씨
“FTA로 제가 활약할 무대 또한 넓어졌어요”
- 26 지상중계
① 한·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알고 진출하면 ‘대어’ 낚는다”
② 한·터키/한·콜롬비아 FTA 설명회
제조업 강국 한국 제품의 수출 증가 기대
③ EU 전문가 초청 전략 포럼
유럽 재정위기 벗어날 해법 모색
- 29 FTA 활용 팁: 원산지증명서로 수수료 면제받기
기존 관세 0%도 '수수료 면제' 적용 가능해



30



38

2013년, 당신의 FTA를 응원합니다

땡큐 FTA, 파이팅 코리아!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 2013년 계사년을 맞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과의 무역 활성화로 무역 강국으로 또 한 차례 도약했다. 그 기세를 몰아 더욱 힘차게 출발하는 2013년, 정부·민간 각계의 소망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모았다.

진행/장현주 기자

“FTA 강국 실현하는 관세행정 펼치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계속된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경제가 최초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무역규모 세계 8위에 올라선 것은 무엇보다 세계 각국과 추진한 FTA가 큰 힘이 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선진 FTA 강국을 실현하는 관세행정'을 목표로 '선통관 후검증' 체제를 확립하고 FTA 활용지원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FTA 상대국의 검증에 대비해 검증수행절차를 표준화, 선진화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주영섭 관세청장

2013 New Year

“글면한 국민성과 진취적인 기업정신이 빛을 발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8개의 FTA를 통해 총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 확장된 경제영토는 FTA에 참여한 상대국과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우리의 소유지라고 생각하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여부는 그와 같이 광활한 경제영토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상대국의 경쟁력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소유지분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 가꾸어 나갈 때에만 우리의 지배력과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근면한 국민성과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정신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채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급변하는 동아시아 통상환경
슬기롭게 맞이하길”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함께하는 FTA' 독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사상 처음으로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저력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앞장 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품목의 고급화와 다변화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EU 등 45개국과 체결한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국민의 물가부담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새해 우리의 FTA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중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을 본격화됩니다. 아무쪼록, 힘차게 시작하는 2013년 새해에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바다운 FTA 소식 많이 기대합니다”



2012년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장을 마련해준 해로 기억됩니다. 많은 우려와 논란들을 뒤로 하고, FTA를 통해 수출이 확대되는 등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이는 FTA를 활용하여 해외 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소기업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들에 대한 '함께하는 FTA'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계속 기대해 봅니다.

김충희 변호사/서울특별시 김사당당관

“충분한 시간 갖고 협상에 임하길”



FTA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FTA 자체 대해 긍정적이고, 필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TA는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통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긍정적인 면은 더 확대하고, 부정적인 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고루 반영되는 협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도영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시설기술단 과장

“우리 기업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는 관세사로서 2013년 새해 국가경제의 화두는 역시 'FTA의 활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FTA를 적극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FTA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은 늘고 국가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있도록 파이팅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더욱 더 넓어져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되는 그날을 함께 꿈꿔 봅니다. 제2의 '강남스타일' 같은 빅히트가 우리 무역에도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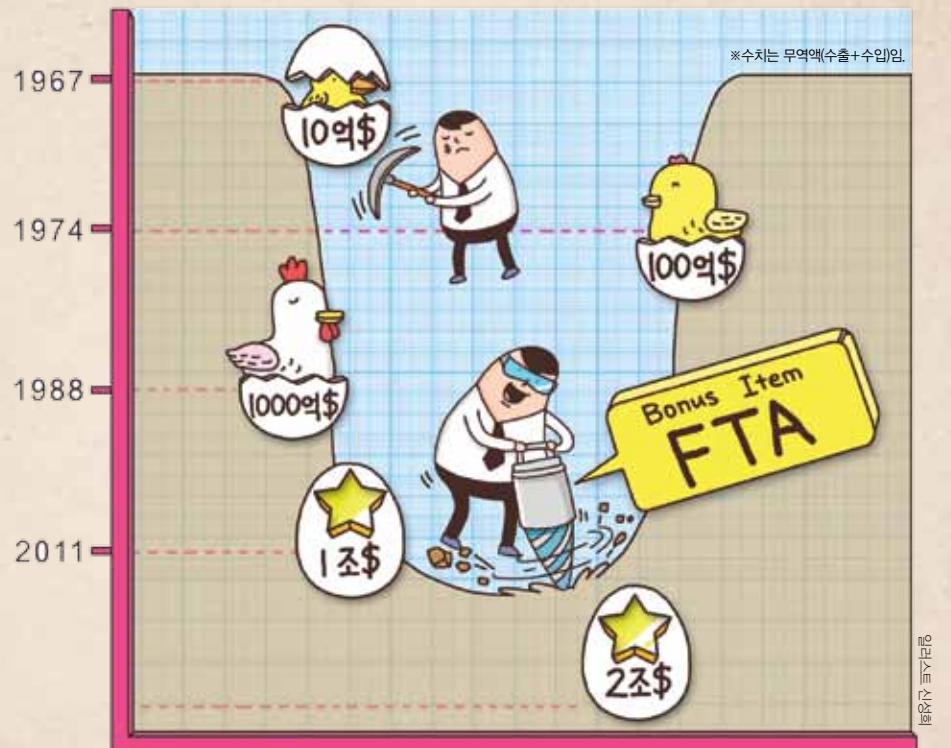
김지한 인천호민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조건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FTA로 헤쳐 나가야

글/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사)FTA 활용포럼 대표



“
지난해 많은 국가들이 상당 폭의 수출 감소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적 뒤에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무역(수출+수입) 1조 달러를 기록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무역규모 기준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중반 수출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으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수출이 다소 나아졌기에 가능했다. 재정위기로 최악의 불황에 휩싸인 유럽에 대한 수출악화를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개도국 수출확대로 만회했다.

인구 5,000만 명의 국가가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뿐이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중계무역이나 환적물량이 많으므로 무역규모의 중요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에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2,000만 달러로 세계 100위의 최빈국이었다. 그나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공업입국과 대외지향적 성장전략 하에서 국민들의 피땀으로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로 세계 24위, 1995년 1,251억 달러로 세계 12위, 2011년 5,244억 달러로 세계 7위 위업을 달성하였다.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유지로 향후 무역 2조 달러 기반을 확보했다.

FTA 없었다면 유럽 수출 크게 악화됐을 것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 루카스 교수는 우리나라의 성장사에 대해 “이렇게 많은 국민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한 경우는 인류의 역사에 없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10년 10월 우리나라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DAC에 가입했다. DAC(DAC)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주관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구이다.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많은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성장전략을 ODA 프로그램에 포함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오일쇼크,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불안요인도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GATT-WTO 하의 다자무역체제에서 무역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세계무역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세계 무역은 연 평균 12% 성장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 무역은 -13% 급락(2009년)에서 14%로 급등(2010년)했다. 하지만, 2011년 세계무역은 5% 증가했고, 2012년에는 3~4%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미국은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불황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 전망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세계무역의 성장부진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정치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대기업들은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양극화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출과 내수 간 균형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어느 쪽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작금의 경제현실이다. 내수는 가치분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경제전망이 낙관적일 때 증가할 수 있지, 정책전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많은 국가들이 상당 폭의 수출 감소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전년 수준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적 뒤에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이 2%(1~9월) 정도 줄었으나, 만약

EU와의 FTA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감소율은 16% 내외까지 악화될 수 있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국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동남아, 인도, 칠레 등에 대한 수출 역시 FTA 혜택을 누리고 있다.

FTA 네트워크 확충과 활용률 증대해야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가 맞게 될 국제통상환경은 매우 불투명하나 FTA 네트워크 확충과 활용률 증대로 수출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개방적 통상정책 기조를 굳건하게 확립하여 수출여건을 개선시키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확립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확충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통상조직을 중소기업 FTA 활용업무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금년 들어 미국과 EU 등이 FTA 원산지기준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및 기업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부터 통상문제는 국정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중국과의 FTA 협상을 진전시켜 조기에 타결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정권 교체기로 양국 협상단이 책임 있게 협상을 진전시키기 어려웠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대상국일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국가이므로 FTA 체결로 상당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FTA 대상국이므로 조기 협상 타결이 바람직하다. 다만 당초 중국이 동의한 바와 같이 농업개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양보’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치경제적 이유로 일본과의 FTA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더구나 일본은 아세안을 설득하여 포괄적 지역통합(RCEP)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FTA는 지역경제통합이든 최종 목적은 국익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원대한 구상은 그럴 듯 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깔린 경제효과와 정치외교적 관점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FTA 정책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무역 1조 달러 시대 성과와 과제

FTA 효과, 어려울 때 더욱 빛났다

경제 영토 세계 3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과다. 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57.3%에 달하는 45개 국가와 8건의 FTA를 체결하며 통상 대국으로 우뚝 섰다. 지난해에는 2011년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부진에서 허덕이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은 염려를 뒤로하고 승승장구를 이어갈 태세다.

글/신규섭 기자

FTA로 무역 1조 달러 시대 앞당겼다

2012년 한국의 무역규모(수출+수입)는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220여 국가 중 수출은 세계 7위다. 무역 순위는 재정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8강에 안착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소폭 감소했으나 장애물 투성이었던 지난해 글로벌 경제 여건을 생각하면 '선방'이 아닌 '승리'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지속, 미국 경기회복의 지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을 문화 등의 대외 여건과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투자 부진의 대내 여건 속에서 거둔 것이기에 더욱 값진 성적표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에 지난해의 무역 규모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으나, 독일 5.1%, 프랑스 5.3%의 감소폭에 비교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도 무방하다.

한국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1964년 5억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규모가 74년 113억 달러, 88년 1,000억 달러, 2005년 5,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을 거듭했다. 1조 달러를 달성한 8개 국가가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26.4년, 5,000억 달러

에서 1조 달러 달성까지 8.4년 걸렸으나 우리는 각각 23년과 6년이 소요됐다. 평균치를 앞서는 초고속성장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무역 G8'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영토 확장 정책'에 있다. 그것은 다시 FTA로 치환된다. 2004년 한·칠레 FTA의 발효로 시작된 한국의 FTA 역사는 2006년 한·싱가포르 FTA, 2006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로 대상국 가가 확대됐다. 이듬해에는 한·싱가포르 FTA를 발판으로 아세안(10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후 더 많은 국가와의 체결에 박차를 가해 2010년 1월 한·인도 CEPA, 2011년 7월 한-EU FTA, 2011년 8월 한·페루 FTA, 지난 해 3월에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발효시켰다.

2010년 명목GDP 기준으로 본 한국의 경제영토는 칠레, 멕시코에 이은 세계 3위(57.3%)다. FTA 발효가 점차 늘어나며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기 침체 속 FTA 체결국 수출 호조 지속

2012년 무역 1조 달러의 성적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12년도 수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5,496억 달러, 수입은 0.8% 감소한 5,201억 달러로 모두 소폭 줄어들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08억 달러 흑자에 비해 약 4% 감소한 295억 달러 흑자로 추정된다(이상 2012년 추정치 기준).

수출량 감소 원인은 대외적 요인이 컸다.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전 세계 수입수요의 감소로 수출이 하락한 것. 하지만 미국, EFTA, 아세안 등 주요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유지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 비중 중 10.7%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은 올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힘입어 관세수혜품목,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의 주도에 힘입어 대미 수출은 4.7% 증가할 수 있었다(2012년 1~11월, 전년 동기 대비).

FTA 발효 효과는 우리와 다른 경쟁국들의 대미 수출을 비교하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동안 FTA 수혜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같은 기간 대세계 수입증가율 2.8%를 크게 상회했다. 쉽게 말해, 지난 해 미국에서는 FTA 체결국인 한국제품을 다른 나라 제품보다 더 많이 샀다는 얘기다.

EFTA, 아세안 등 또 다른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증가도 눈에 띈다. 지난해 1~11월까지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9%로 약세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10.0%, 싱가포르, 칠레는 각각 10%와 3.1%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8.2%, EFTA로의 수출은 무려 35.1%나 증가했다. FTA가 발효된 국가들에 한국 기업들이 더 많

이 팔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또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에의 수출이 각각 1.2%, 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FTA 발효 효과가 가시화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체결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FTA 효과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FTA 발효국 중 수출이 감소세였던 것은 EU와 인도 뿐이었다. 특히 한국의 수출 비중 4위를 차지하는 EU는 재정 위기로 인해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깎아먹은' 지역이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품목의 수출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부터 1년 간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이 각각 -1.7%, -0.2%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선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2013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등의 경기부양정책으로 극히 부진했던 선진국 경기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신흥국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량도 전년에 비교해 4.5%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또 다른 FTA 파트너를 맞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터키 FTA와 8월 가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불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의 경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



일러스트 송영근



2013년 무역환경 어떻게 되나

동아시아 통상 변수 적극 대응해야

2012년 우리 무역 업계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의 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다시 힘든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사실상 2012년 수출 부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해 둔화폭이 작고 속도도 완만했던 것으로 평가되나, 문제는 회복될 수 있는 뚜렷한 모멘텀 없이 불확실성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과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우리 무역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으나, FTA 체결국 확대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위원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한국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대외 변수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통상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두고 퍼포먼스에 나선 한국무역협회 직원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3년에도 유럽 경제는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0월에 발표된 IMF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0.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1월 OECD는 유로존의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2013년에도 마이너스(-0.1%)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렇게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유럽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쉽게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2013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향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세계경제, 미국·중국이 관건

미국은 2013년 초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했던 각종 세금 감면을 종료시키고 정부지출을 대

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 중심의 5세대 공산당 신지도부는 2013년에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문제 때문에 2009년도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13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재정절벽의 회피로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IT제품 최대 수요지인 미국의 수요 증가가 우리의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의 수출 여건은 2012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약세 지속, 유가는 소폭 하락 전망

2013년 우리 수출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다. 지난 12월에 2013년도 전망 수치였던 1,080원을 이미 하회했기 때문이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록,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 등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엔화의 약세 현상이 우리 수출 업계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그동안 지속되었던 엔고에 따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반면, 해외에서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업계는 엔화 약세,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유가는 2013년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요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산유국들이 공급을 확대하고 오일샌드 및 세일오일과 같은 비전통오일의 생산으로 유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속에서도 지역주의 지속 확산

2013년에도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낮은 반면 양자간 FTA 체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는 2013년 상반기에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총 47개국과의 FTA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 외에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 협상이 지속되나 2013년 중에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의 경우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마쳤으며, 2013년에는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부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중·일 FTA는 3~4월경 1차 협상이 개시되고, 더불어 아세안,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를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지역 9개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은 지금까지 15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에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경제정보가 올리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형태는 관세장벽부터 고비용의 수입허가제, 통관 자연과 같은 비관세장벽까지 매우 다양하며, 2012년에는 특히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무역 1조 달러 시대, FTA 활용 수출기업들

품질에 가격경쟁력 더하니 수출 '훨훨'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한국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위기에 더욱 강해지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저력이 있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유럽, 미국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의 FTA 협정은 실질적인 기업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글/우종국 기자

구윤회 에이스브이 회장

세계 최고의 밸브 메이커로 우뚝

지난해 무역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구윤회 에이스브이 회장은 27년간 현대중공업에 재직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0년 4월에 밸브 전문 회사를 설립했다. 국내외 조선 및 기계, 플랜트 시장에서 사용되는 밸브의 대부분을 외국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외수입 70~80%, 미국 기술로 열티 지금 국내 업체 20~30%)해 왔으나, 제품을 개발해 수입 대체 효과 및 국내 밸브 기술 향상을 가져왔다.

에이스브이가 생산하는 밸브(HS코드: 848180)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율 2.2%가 철폐됐고, 한·미 FTA 협정 이후 4%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에이스브이는 2000년 매출액 4억여 원에서 매년 두 배 이상의 매출신장을 이뤄 2011년에는 83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2년에는 1,2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액은 6,15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가 증가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 확보와 해외 신시장 개척으로 세계 최고 밸브 메이커로 입지를 굳힌 것이 비결이다.



윤석봉 일광메탈포밍 대표

세계 3위 경쟁력…3년 새 수출 2.5배로 증가

윤석봉 일광메탈포밍 대표는 약 12년간 산업용기계제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1988년 샌드위치판넬생산라인 전문 기술 제조업체를 설립해 현재 국내시장 1위, 세계 3대 메이커로 성장한 작지만 강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키워냈다.

최근 3개년 수출실적은 2009년 803만 달러, 2010년 750만 달러, 2011년에는 전년대비 약 180% 증가한 2,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지역별 수출실적은 유럽 690만 달러, 중동 390만 달러, 미국 350만 달러, 아시아 520만 달러, 아프리카 150만 달러, 오세아니아 100만 달러로 다변화되어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한 신기술인 △세계최초로 개발한 시멘트보드 연속샌드위치판넬라인(수출실적 160만 달러) △세계최초로 개발한 최소경량 0.16mm 박판성형기(수출실적 240만 달러) △세계최초로 개발한 지붕재절단용 로타리샤링기(수출실적 150만 달러) △세계 두번째로 개발한 사이드멤버(수출실적 250만 달러)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일광메탈포밍이 생산하는 샌드위치판넬라인(HS코드: 847989)은 한·EU FTA로 인해 관세 1.7%가 철폐되면서 가장 수출량이 많은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한·아세안 FTA를 통해 태국에서 30%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출 호조를 띠면서, 최근* 수출은 전년 대비 181%가 증가한 2,09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승현창 동화상협 대표

EU, 미국서 관세 인하 효과 톡톡히 봄

동화상협은 1972년 창업 후 목재관련 사업을 해오다가 1984년 자동차 알루미늄 휠 생산 사업을 시작했다. 매출액은 2009년 1,900억 원, 2010년 3,200억 원, 2011년 5,100억 원으로, 해외 수출 실적은 2009년 1,400억 원, 2010년 2,200억 원, 2011년 3,600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1998년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해 R&D 투자, 설비증대를 지속해 현재 미국 GM의 1차 협력업체로 수출을 진행 중이며, 일본, 호주, 유럽 등 자동차 메이커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북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여 북미지역 자동차 메이커의 신규 개발과 고객사 대응을 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 및 기타 지역에도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동화상협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HS코드: 870870)은 한·EU FTA로 4.5%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유럽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고,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도 한·미 FTA를 통해 2.5%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3억5,84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TA\]](#)



*2011년 하반기 + 201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경쟁력 키울 터

FTA 시대를 맞아 농수산 분야 수출성장동력 확충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 촉진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별 수출 확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유망 박람회·전시회 참가, 대형유통업체와의 MOU 체결, 해외 마케팅 등을 펼치는 등 수출지원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김재수 aT사장에게서 FTA와 농수산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글/이현주 기자 사진/서범세 기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사장



FTA가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은 작으나 인구는 많고 자원은 부족해 주곡인 쌀을 제외한 먹을거리 대부분을 자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식량과 사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죠.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타국과의 활발한 교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FTA 추진은 이러한 관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 분야의 경우는 대표적인 취약 분야로 꼽히면서 FTA체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

데요. 실제 사례와 경험으로 볼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FTA로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농식품 수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30억 달러에 머물렀던 농식품 수출금액은 2009년 48억 달러, 2010년 59억 달러, 2011년 77억 달러, 2012년 약 8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3년에는 약 1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 국내농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지난 20년 동안 30억 달러에 머물렀던 농식품 수출금액은 2009년 48억 달러, 2010년 59억 달러, 2011년 77억 달러, 2012년 약 8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3년에는 약 1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관세 철폐 유예기간 적용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세워서 2017년 까지 농어업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가지원은 단순히 농어업의 피해보전차원이 아닌 세 계획과 개방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FTA 활용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그동안 정부와 aT는 농어가 소득향상과 연계성이 높은 다수의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4년 동안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주요 수출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수출성장동력 확충과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확대 추진전략을 수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현장 최일선에서 유망 식품박람회나 전시회 참가와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MOU체결 및 홍보판촉전 개최, 해외 우수바이어 초청, 해외마케팅, 정보조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T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주력했던 부분이 있다면요.

가시적인 성과로는 국내 식품 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하기 위한 창구 단일화를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푸드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또한 수급정보센터를 신설해 농수산물의 수급 관리를 기존 사후 관리에서 선제적 대응 체제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복잡한 농산물 유통 경로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9년에 처음 시작한 농수

산물사이버거래소가 올해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무엇보다 올해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고 직거래 시스템을 여는 방식으로 구매 원가를 절감,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최근 한식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식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류’ 드라마와 K-팝의 인기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가 해외에 진출하면 농산물과 식재료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적·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T 도 향후 지속적으로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이라는 목표 아래 한식 인프라 구축, 한식 전문 인력 양성,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 농업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시대와 국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패배와 좌절,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대변화에 알맞은 농업정책 목표를 설정하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R&D)의 효율화와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농업영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먹을거리 공급과 우리의 생존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농업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셋째는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법령과 제도개선, 조직과 기능개편, 의식 선진화를 추진해야합니다.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추어야 나가야 하며,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산물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도약, 미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가 2012년 3월 발효됐다. 발효 후 4~9월까지 자동차, 기계류, 석유제품 등 한·미 FTA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 성장(수출증가율 2.9%)을 이끌었다. 우려됐던 농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상 기후로 인해 과일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국내 시장을 안정시켜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일조했다. 또한 한·미 FTA는 직접적인 수출입 외에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이끈 요인이기도 하다.

올해는 잘해보자구! EU

지난해,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던 지역이 바로 EU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 지속되는 재정 위기로 유럽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한파가 연중 내내 몰이닥친 탓이다. 다행인 것은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점. 또한 FTA 효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수출 감소폭이 작았다는 것은 긍정적 성과를 기록하는 증거다. 2013년 유럽 재정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려나갈 경우 한국의 수출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류 바람 타고 수출도 솔솔, 아세안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상품 부문 FTA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09년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됐다.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을 선점하기 위해 시작된 한·아세안 FTA는 발효 이후 5년간 교역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선진국 시장 위축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경제블록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 EFTA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E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됐으며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3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대EFTA 무역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중요할 의미를 갖는다.

와인 하나 끌내주죠, 칠레

칠레는 한국의 FTA 1호 대상국이다. 한·칠레 FTA는 5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거쳐 2004년 4월 발효됐으며 지역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및 안정적 수출 시장과 구리 등 원자재의 수입시장 확보라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새로운 기회의 땅, 페루

풍부한 자원국가, 높은 경제 성장률로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페루는 한국에게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로 부상 중인 곳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국가인 페루는 한국에서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 기기 등을 주로 수입하고 은, 아연, 주석 등 지하자원을 수출한다. 지하자원 수입량이 많아 FTA 발효 전 대페루 무역수지는 만년 적자였으나 FTA가 발효된 이후 2012년 상반기 이후로는 적자폭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 일부 의약품 등의 관세가 모두 철�落되면 대 페루 수출 증가세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트 차이나, 인도

인도와의 CEPA는 2010년 1월에 발효됐다. CEPA는 일반적 개념의 FTA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한다.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자랑하는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다. 인도는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

한 수출 둔화 및 고유가, 정치 불안으로 인해 다소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국제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칠레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FTA 파트너 국가다.

소규모의 도시형 국가임에도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세계 2위 무역형, 세계 4대 외환

시장,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

터 등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한 나라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을 제외하고 FTA

발효 후 7년 동안 싱가포르의 수출 증가율은 두

자리수 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형제의 나라에서 무역 파트너로, 터키

지난해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로 터키는 한국의 9

번째 FTA 체결국이 될 예정이다. 7,500만 명 인구의 내수시장, 높은 소비성향,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상황,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등의 이유로 '포스트 브릭스(BRICS)'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다. 한·터키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부문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커피 좀 사질까? 콜롬비아

4,600만 명의 인구가 가진 중남미 3위 시장 콜롬비아. 지난해 FTA 가서명으로 중남미 국가로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 FTA 파트너가 됐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다.

한·콜롬비아 FTA는 올해 발효가 예상되며, 발효 시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류 등의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이홍표 기자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중간재 규정

부품 직접 생산한다면 '중간재' 활용하라

원산지판정 시 '부가가치기준'은 각 원재료·부품 각각의 가치(가격)를 따져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개별 FTA 협정과 품목마다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 비율은 상이한데, 이를 따져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FTA의 일반원칙 중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특례기준 중 하나인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면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글/우종국 기자



롤-업(Rolled-Up)이란, 국내산으로 판정된 원재료·부품은 그 중에 일부 비원산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 국내산으로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롤-다운(Rolled-Down)은 비원산지로 판정될 경우 그 중 국내산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 비원산지로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흡수 규정원칙'이라고 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 원재료·부품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생산한다면 어떨까? 구매할 경우 흡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흡수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흡수규정원칙과 동일하게 '중간재' 규정을 통해 롤-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구매가 가능한 부품을 직접 생산할 때 중간재로 롤-업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간재 규정과 같은 특례규정은 원산지판정 시 일종의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사는 유압브레이크(HS코드: 8431.49)를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는 수출중소기업이다.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의 약 66%를 차지하는데, FTA 활용 관세혜택은 협정에 따라 1~7.5% 안팎으로 FTA 실익이 매우 커다.

이 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은 불충족한 상황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원재료 공급사인 B사 등으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확인서류를 받기 힘든 상황으로 FTA 활용을 포기한 상태였다.

A사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세관이 실시한 FTA 무료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세관은 A사의 컨설팅 후 유압브레이크의 주요 부품인 실린더에 쓰이는 철강 잉곳(ingot: 주괴)을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 착안해 중간재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로 기존 공급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던 4개 부품은 국내업체로 거래선을 전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역내 부가가치가 51%로 상승하면서 원산지기준(부가가치 40% 이상)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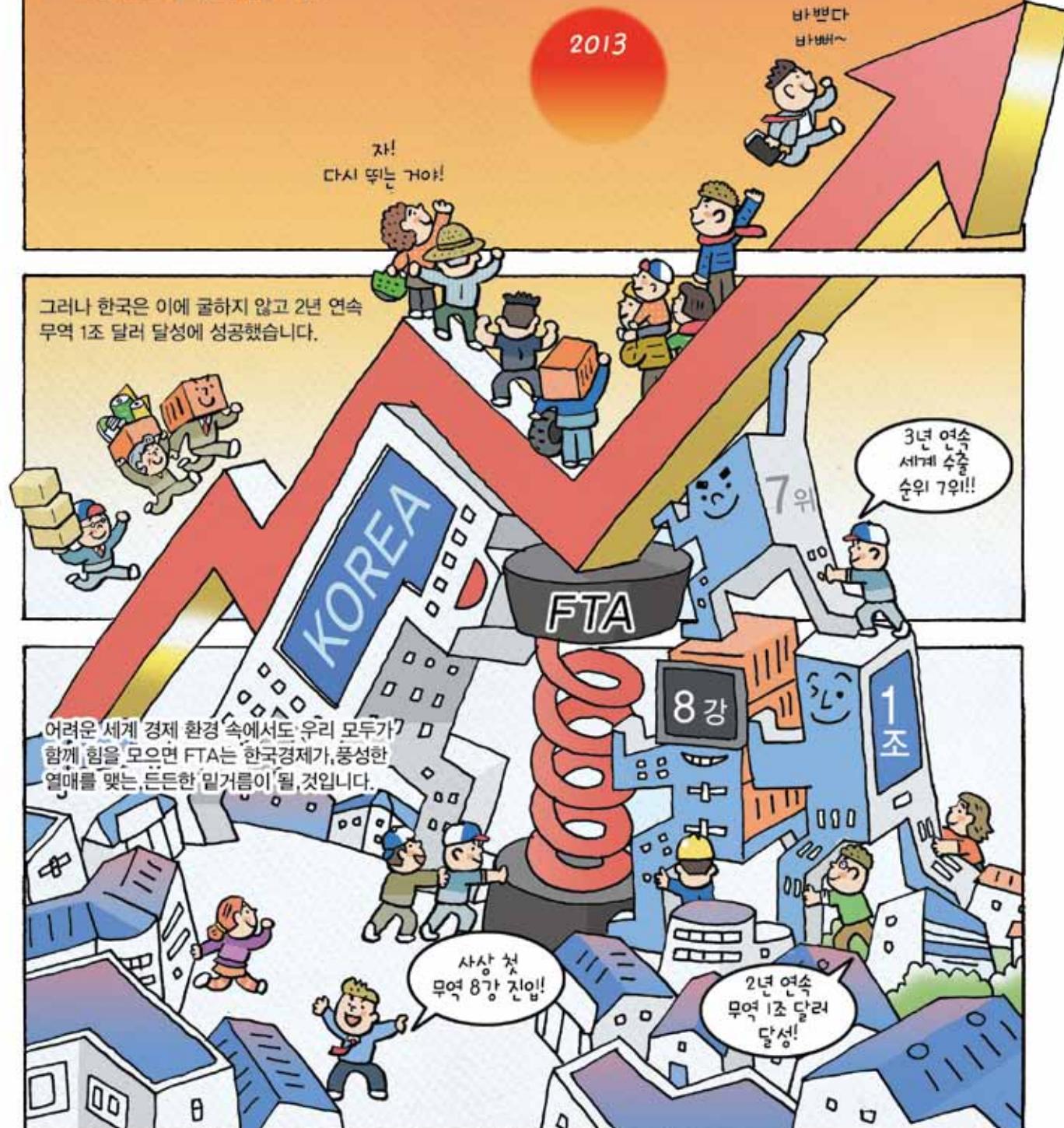
이후 A사는 아세안 수출이 2012년 5월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했고, 인도 수출 또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2012년 4월 20일)한 뒤 한 달 동안 215%의 수출이 증가했다.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에서는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음.)



함께하는 FTA! 다시 뛰는 대한민국!

안종만

유럽 재정 위기, 미국 경기 침체, 중국 경제 불황 등...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대한민국의 2012년 출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개 전문기관이 공조하니 시너지도 3배죠”

부산광역시는 전형적인 항구도시로 2012년 12월 현재 등록된 기업수는 3,857개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3,801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2,3차 벤더업체가 주를 이룬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부산 산업을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글/장현주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부산FTA활용지원센터(이하 부산센터)는 타 지역 센터들과 달리 3개 기관의 공조를 통해 운영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FTA관련 설명회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업체 컨설팅을, 부산경제진흥원이 업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TA 교육을 담당하는데, 원스톱 시스템도 장점이 있지만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보다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FTA 실무와 관련해 3자가 각 분야별로 보다 상세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얻는 시너지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가 밀집한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FTA 관련 민원이 주류를 이루는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꾸

준한 홍보와 찾아가는 컨설팅의 결과 2011년 2,117건이었던 업체 지원 건수가 2012년 11월 기준으로 2,462건으로 증가했다. 부산센터 박윤철 씨는 “원산지증명 등 FTA에 관한 업체들의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컨설팅의 경우도 2012년 11월 현재 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이 172건, 전문상담원이 유선상으로 진행하는 기초 컨설팅이 190건에 이른다.

2013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부산센터도 야심찬 신년 계획으로 상반기에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김지영 관세사는 “CEO들의 인식이 변하면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센터는 보다 질 높은 교육, 설명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좋은 강사 발굴에 열심히 노력 중이다.

부산FTA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 성공 사례

과거 원산지증명 발급 오류 정정까지
‘똑부러진’ 서비스



CASE
1

(주)금문산업



(주)금문산업은 자동차(완제품) 수출 대기업에 라디에이터 그릴과 엠블렘(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대상 품종 HS코드별로 5~6종)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다. 이 회사는 1~2년 전부터 고객사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요청받아 발급해 오다가 부산센터에 현장 컨설팅을 요구했다. 과거 납품한 물품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적합성 판단과 향후 직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 등 대한 제반 컨설팅이 필요했기 때문.

방문 결과, 금문산업은 2012년 현재 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도 진행하고 있었으나, 현지 바이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없어 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관세사가 총 6회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직원 교육을 통해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시 상대국의 특혜 관세 적용 여부 및 인하율 확인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 주로 수출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대상으로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근거서류를 취합해 본 결과, 금문산업은 구매원장, 제품공정도,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까지 전반적인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었지만 FTA특례 법상의 보관준수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숙지토록 강조했다.

금문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라디에이터 그릴의 경우 과거 HS코드에 대한 자식이 없어 고객사에서 HS코드 8708.99로 일괄분류하고 있었다. 문제는 금문산업의 다른 품목들 역시 정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동일코드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 관세사는 현 품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기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S코드 8708.29가 타당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세번변경 및 미소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과거 발급 내역에 대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었고, 과소 환급 및 과다 환급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었다.

CASE
2

한국몰드(주)



한국몰드(주)는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인젝션 몰드(금형) 등을 수출하는 업체다.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거래처를 찾던 중 스페인의 아리구사(GA ARAGUSA)와 17만 9,000유로 규모의 인젝션 몰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스페인 바이어에서 원산지증명서 요청이 있었으나 한·EU FTA 및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센터는 수출품목인 인젝션 몰드에 대해 BOM(자재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자료를 검토했는데, 해당 품목의 경우 원재료 수가 150여 가지에 달했고 그에 대한 HS코드 파악 및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했다. 각 협력업체에 유선 및 메일을 이용해 원산지증명서 작성법을 알렸으나 협조는 미미했다.

관세사는 한국몰드의 원산지인증서 획득에 가장 적합한 MC(역외부가기차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업체측에 수출 품목의 정확한 원가산출내역서 및 핵심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수취를 요청했다. 검토 결과 MC 비율이 19.9%로 MC 45%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몰드 수출건의 경우 17만 5,000유로 규모이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컨설팅 과정에서 원산지소명서, 수출품 원가산출내역서, BOM, 제조공정도 등 서류에 대해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정확성 여부를 판단해줬다. 한국몰드의 수출일자는 4월 10일이었으나 인증 지정일은 4월 30일.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바이어인 스페인의 아리구사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토록 요청, 수출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젝션 몰드의 EU 기본 세율은 1.7%, 협정세율은 0%로 1.7%의 관세 절감효과를 얻었는데, 한국몰드는 3,043유로 상당의 관세를 아낄 수 있었다. 한국몰드는 향후 제품 가격경쟁력 상승과 이로 인한 수출량 증대를 한껏 기대하고 있다.



조명전문회사 (주)아모렉스 FTA로 가격 경쟁력 '쑥쑥'... 수출 드라이브 걸다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의 힘은 때로 기술력을 넘어서선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수출길은 막히고 만다. LED조명에 강점이 있는 (주)아모렉스도 이 때문에 중국에 몇 번 자리를 내줬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FTA발효 이후 관세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글/이현주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유럽에서 고전하던 아모렉스는 한·EU FTA 발효 이후 4.7%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유럽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김인웅 아모렉스 대표.

2009년 설립한 (주)아모렉스는 LED조명, 특히 가로등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아모텍의 관계사로 2004년부터 연구개발을 한 끝에 독자적인 조명 전문회사로 분사하게 됐다. 김인웅 대표이사는 설립과 함께 영입된 CEO이자 LED 전문가이다.

“LED조명은 에너지효율이 높아 절전 효과가 있죠. 아모렉스는 LED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이전부터 기술개발을 해왔어요. 아모텍이 ‘녹색 기술’ 전문기업이기에 가능했죠. 그렇게 탄생한 가로등의 기술과 디자인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어요”

2009년 초, 벨기에 정부가 실시한 가로등 설치 테스트에서 아모렉스는 70여 개국에서 모여든 경쟁 회사들을 뒤로하고 성능 시험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대형 조명업체들을 제쳤다. 2년 후 추가 테스트에서도 톱 3위 안에 들어 벨기에의 전국 가로등 교체사업에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를 계기로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시험 설치 요청이 들어왔다.

“결과를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죠. 벨기에는 인구 300만 명에 가로등이 500만 개 이상 설치된 ‘가로등 선진국’인데요. 그런 곳에서 인정을 받으니 여기저기서 아모렉스가 뭐하는 회사냐는 문의를 많이 해왔어요.”

전체 매출 80%이상 수출에서 올려

가로등 비즈니스는 ‘선 설치, 후 계약’의 절차를 거치는 점이 독특하다. 일반 형광등과 달리 한 번 설치하면 길게는 10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견증기간을 두고 있다. 평가에 통과하면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아모렉스는 처음부터 내수보다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영업을 펼쳤다. 유명 세계 조명 전시회에 출품하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영국 런던과 미국 LA에 해외



지사도 설립했다. 주로 대도시의 명소에 가로등을 시험 설치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유럽을 비롯해 러시아,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문을 두드렸다. 아모렉스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에서 올리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6개국에 가로등을 시험 설치해왔습니다. 길게는 3년 이상 된 것도 있죠.”

김 대표가 강조하는 핵심 기술은 ‘조명 설계’에 있다. 세계 각국의 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가로등 높이나 간격에 맞게 배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국립박물관, 인천 공항 등 대형 건축 조명을 다뤄본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요청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모양으로 가로등을 디자인해, 눈이나 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멀티 스팟’ 방식의 배광 기술을 사용해 고객 요구에 맞춰 조명의 모양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 정부 지원 받아 수월하게

김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몇 년간 시험 설치를 통해 견증이 끝난 가로등이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높은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FTA에 있다. 그동안 해외영업을 할 때 기술력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일이 여러 차례였지만, FTA를 활용하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처음에는 기술력으로 홍보를 많이 했죠. 기술로만 보면 필립스나 세계 유명 업체와도 경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통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해요.”

FTA로 관세 혜택을 보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게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 특히 중국이 강세를 보이던 칠레와 태국 시장의 변화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였다. 아모렉스가 생산하는 가로등 완제품(HS코드: 9405.40)의 경우 한·EU FTA로 4.7%이던 관세가 철폐됐고, 한·미 FTA로 6%의 관세가 철폐됐다.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이 더해지면서 수출에 날개를 단 셈이다. 유럽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로 덴마크를 중심으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덴마크 수출은 60건을 넘어섰습니다. FTA를 활용하면서 지난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횟수가 이전에 비해 5배 가량 늘었어요. 일이 많아지면서 직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35명으로 출발한 아모렉스는 지난해 기준 64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수치로 나타나는 실적 이외에도 김 대표는 FTA 효과로 ‘내부 행정 역량이 강화된 점’을 꼽았다. FTA를 준비하면서 서류 정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행정 인식이 강화됐다는 얘기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지원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OK FTA’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관세사와 회계사의 방문으로 원산지 증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모든 부품을 일차적으로 분류하는 게 어려웠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원산지 증명을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하는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아모렉스는 올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터키 FTA와 한·콜롬비아 FTA에 대비하는 일도 놓치지 않고 있다. 터키의 변화가 인턴 거리 중심가에 가로등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는 시점이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FTA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매출 목표는 14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모렉스의
가로등은 벨기에
정부가 실시한
테스트에서 70여개
국의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행복을 나르는 민간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현대상선 신입사원 김혜린 씨. 그녀는 “면접 때 새침데기 같지만 씩씩한 여성임을 면접관들에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2013년 김 씨에게는 망망대해 세계의 바다가 좁을 것만 같다.

글/공태윤 한경잡앤스토리 기자 사진/신경훈 한국경제 기자

현대상선 중량화물선 ‘현대마산’호가 경남 마산항에서 작업 중이다.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항구에 있는 500톤 무게의 발전기를 번쩍 들어 선박에 내려놓았다.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선박도 파도와 함께 춤을 춘다. 그 육중한 발전기가 선박에 놓이자 이번엔 크레인을 묶는 작업이 이어졌다. 마산에서 최종 목적지인 중동 아부다비까지 가는 1차 선적 작업이 겨우 마무리됐다. ‘휴~~~~’ 이제 겨우 선적을 마쳤을 뿐인데 안도의 숨이 나왔다. 그리곤 중동의 고객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출항시간을 알렸다.

배낭 하나 달랑 메고 20개국을 돌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상선 입사 14개월 차인 김혜린 씨는 지난 봄 자신의 ‘첫 작품’을 떠올렸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과 긴장감을 생각하면 온 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란다. 중량화물 벌크선과 20대 여성.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였지만 김 씨는 입사 11개월 만에 멋진 조화를 이뤄냈다.

“프로젝트화물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초기였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해외 고객이 영업 담당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라고 했더니 믿질 않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동기생 절반 이상이 여자인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젠 그 고객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까지 알 정도로 친해졌다는 사실이에요.(웃음)”

김씨는 현재 현대상선 프로젝트 영업팀에서 중량화물 벌크선을 맡고 있다. 벌크선은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포장되지 않은 곡물, 광석, 장비 등을 운송하기 때문에 업무가 까다롭고 힘들다. 이런 거칠고 막중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 이야기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6학년때 해운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해외출장길에 우연히 동행하면서 꿈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들과 만나 영어로 대화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감동을 받았죠.”

그의 입사지원서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다. 외교통상부 인턴, 미국 해군 장군 의전과 통역, 인도와 스페인에서의 유네스코 봉사 활동에 성적우수 장학금과 동문추천 장학금까지 받은 이력이 빽빽하다. 게다가 스무 살 때부터 배낭 하나 들고 혼자 전 세계 20개국을 여행한 강심장도 지녔다.



현대그룹빌딩에서 모형 컨테이너선과 함께 포즈를 취한 김혜린 씨.
2013년 세계 바다를 무대로 제대로 꿈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FTA로 더 넓어진 세계 뱃길이 무대

두 시간이 채 되지 않는 인터뷰 동안 김 씨의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샛별’ 같은 존재라는 증거다. 해외의 화주들과 전화와 이메일로 24시간 연락은 기본이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이메일 확인이란다.

“어느 날 준비된 화물의 포장불량으로 인해, 선적 도중 화물의 일부분이 떨어지면서 배 천장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때 얻은 제 별명이 ‘천장 구멍 낸 여자’였어요. 물론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지만 그땐 수습하느라 진땀 뺐죠, 하하하.”

김 씨가 해운업을 택한 것은 운명이었다. 2개월의 짧은 해운회사 인턴 시절 해운업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던 것. 업무가 체계화된 컨테이너보다는 벌크선 분야에서 꿈을 펼칠 기회가 더 많은 것이란 기대에서였다.

“사장님께서 해운업은 어떤 산업보다 글로벌한 분야로 인생을 한 번 걸어볼 일이라고 하셨어요. FTA를 통해 한국과 교류하는 나라가 많아지면 물류량도 많아질테니 제가 할 일도 늘어나겠죠. 우리 기업들이 FTA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면 물류기업들 역시 그것을 토대로 동반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은 중동지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유럽 등지는 회사 전체로 보면 주요한 항로예요. FTA로 저의 무대 역시 더욱 넓어진 셈이죠.(웃음)”

FTA로 세계 경제지도가 바뀌면 세계 뱃길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국제 경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물류기업들에게 FTA는 기회이자 동시에 도약의 발판이 돼 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사회생활 14개월째인 김 씨에게 세계바다는 그저 좁을 뿐이다. FTA로 더욱 확장된 대한민국의 경제 뱃길을 책임질 든든한 주역을 만난 오후였다. ■



지상중계① 무역협회, 한·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알고 진출하면 ‘대여’ 낚는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의 조달시장도 개방됐다. 국내 조달시장 규모가 5,000억 원 규모인데 비해 미국은 약 6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 특히 미국 조달시장 실적이 없더라고 국내 조달시장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입찰 자격기준이 바뀜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월 4일 미국 로펌 전문가들을 초빙, 미국 조달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글/장현주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내 조달시장 관련 소송과 컨설팅 경력 50여 년을 자랑하는 미국 통상전문 로펌 맥케나 롱 앤드 알드리지(McKenna Long & Aldridge LLP) 변호사들이 강사로 초빙돼, 미국 조달시장 진출 전략과 한·미간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맥케나 롱 앤 알드리지 알란 울프(Alan Wolff) 변호사는 “한·미 FTA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협정으로 미국에서 보자면 NAFTA보다 오히려 기대가 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FTA가 발효 중인 8개 지역 가운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은 미국과 EU”라며, “특히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조달시장은 전자기술이나 건설에 대한 탁월한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강사로 나선 앤드류 박(Andrew Park) 맥케나 롱 앤 알드리지 한국지사 대표는 한국 기업을 위한 미국 조달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발표에서, “미국 조달시장이야말로 한국 중소기업이 도전해 볼만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단, 주마다 상이한 주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특성상 계약 시 어떤 주법이 적용될 것인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흥미를 모았던 대목 가운데 하나는 거래 상대기업에 제공하는 담례품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기업들이 주는 작은 담례품 하나가 미국적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어 미국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기업의 재무관리, 한국내 조달시장 실적관리는 물론 윤리강령도 사전에 정비하고 회사 직원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달시장 입찰에 관한 연·월간의 자세한 스케줄은 주정부나 각 시의 홈페이지에 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미국 조달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1,3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방위산업과 전자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

Interview

알란 울프 맥케나 롱 앤드 알드리지 변호사



미국 조달시장의 특징은. 각 주, 주정부를 합하면 조달시장 규모는 6조 원으로 매우 큼 편이다. 미국 조달시장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 한국은 전자와 건설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가격 대비 고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승산이 있다.

맥케나 롱 앤드 알드리지가 50여 년의 조달 시장 경험을 축적했다고 하는데, 미국 조달시장과 관련해 세계 각국과의 소송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긴가.

우리가 하는 일은 절반이 소송이고 나머지 절반은 컨설팅이다. 이는 조달시장 진출에 그 만큼 사전 정보와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국 조달시장은 주정부 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 등과의 네트워킹이 탄탄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 전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양국, 양 기업간이 서로 다른 기준을 반드시 점검해야하는데, 계약 시 선택하는 주가 어디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대기업의 주법이 자사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제3의 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지상중계② 한·터키/한·콜롬비아 FTA 설명회

제조업 강국 한국 제품의 수출 증가 기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터키 FTA와 8월 가서명된 한·콜롬비아 FTA의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 왔다. 이로 인해 터키와 콜롬비아에 대한 관심 또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한·터키/한·콜롬비아 FTA 설명회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글·사진/우종국 기자

한·터키/한·콜롬비아 FTA 설명회는 △한·터키 FTA 주요 내용(이성호 외교통상부 정책심의관)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윤창현 외교통상부 1등 서기관) △터키, 콜롬비아 교역현황 및 수출유망산업(명진호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FTA 개요 및 원산지판정 실무(이용만 한국무역협회 판세사)의 총 4개의 세션으로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성호 정책심의관은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터키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포스트-브릭스(BRICs) 국가로,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며, EU·중동·아프리카 국가와 FTA를 맺은 네트워크가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터키 FTA의 협정내용에 따르면 상품협정의 경우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내 약 100%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한국 99.6%, 터키 100%). 공산품의 경우 양측 모두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의 경우는 민감품목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되었는데, 품목수 기준으로 40.7%에 해당한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발효 5년 후 교역은 6억3,0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4억4,000만 달러 증가, 10년 후에는 교역 7억4,000만 달러, 무역 흑자는 5억1,300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윤창현 1등 서기관은 “콜롬비아는 주요 신흥

시장인 시벳(CIVETS: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원으로, 인구 4,600만 명의 중남미 3위 시장, GDP 3,200만 달러로 중남미 4위다. 자원 부국인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은 한국의 대콜롬비아 에너지·자원개발사업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10년 내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수입액 기준, 한국 99.6%, 콜롬비아 97.8%). 공산품의 경우 100% 가까운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 측은 커피원두에 대해, 콜롬비아 측은 인스탄트커피 및 인삼음료, 녹차, 견과류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10년 내 한국 99.9%, 콜롬비아 100%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수입액 기준). 특히 쌀은 협정에서 배제됐으며, 쇠고기, 고추, 마늘 등 151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한편 세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한·터키 FTA의 경우 석유제품(관세율 3.5~4.7%), 중소형 자동차(관세율 10%), LCD TV(관세율 14%)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품들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는 타이어(관세율 10%), 건설중장비(관세율 5%), 화물차(관세율 15~35%)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상중계③ EU 전문가 초청 전략 포럼



유럽 재정위기 벗어날 해법 모색

'EU 전문가 및 관심기업 초청 전략 포럼'은 한·EU FTA 발효로 EU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럽연합대표부 및 대사관 관계자들은 유럽 시각에서 한·EU FTA를 보는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글/이현주 기자 사진/한국무역협회

유럽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소, 대학, 민간 기업 등 EU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가 지식경제부 후원을 받아 지난 12월 13일 코엑스에서 진행한 'EU 전문가 및 관심기업 초청 전략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EU 경제 전망에 따른 한·EU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이날 포럼은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EU 재정위기 진단, △2013년 EU 및 유로존 경제 전망, △한·EU FTA와 한·EU 경제 협력 등 총 세 분야로 나눠 논의됐다.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선물, 이탈리아 대사관, 스페인 대사관,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션 1에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유로존의 대응,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조 발표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이나 장기적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의 위기"이며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긴밀한 조율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정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2013년 유로존 및 EU 경제를 전망하며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존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2분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2012년 유로존 경제는 -0.4%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계기로 독일식 경제모델이 유로존에 확산되고 있다"며 "독일 등 재정 여유국들의 대대적인 수요 창출정책이 없을 경우 유로존은 수요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고 해외시장(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날 관심은 단연 '한·EU FTA와 경제 협력'에 모아졌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열린 세션 3에선 한·EU FTA와 한·EU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전윤종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장은 '유럽 2020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R&D 투자를 GDP의 3%로 제고하고 20~64세 인력의 고용률을 75%로 확대하는 똑똑한 성장의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EU 간 공동 중장기 협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략 포럼의 전문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http://onlineseminar.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기존 관세 0%도 '수수료 면제' 적용 가능해

미국으로 기구를 수출하는 A사는 최근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달라는 요청을 갑작스레 받았다. 한·미 FTA 발효 이전에 A사의 수출품은 미국으로 수출 시 관세 0%였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원산지 판정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 0%라도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면 미국 정부에 내는 수입 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바이어가 급히 요구한 것이었다.

글/정화신 관세법인 대우 관세사

(주로 IT부품류)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 제2.10조 규정에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미국의 수입자는 수입 시 적용세율이 0%인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원산지 물품은 수입 취급수수료도 면제

참고로 미국의 경우 수입 시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송장금액의 0.21%를 부과하며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까지 부과한다. 평소 FTA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업체의 경우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겠지만, 이미 WTO 협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적용세율이 0%인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FTA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없이 '자율발급'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한·아세안 FTA 또는 기타의 기관발급 대상 FTA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기관증명)하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에 반해,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자율증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산지판정에 대한 준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수출자는 원산지판정 작업을 수행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일단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자의 책임 하에 원산지가 역내산이라고 판정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업체라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서명카드, FTA BOM(자재명세서) 등 기본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 대상기업으로는 종이류 제품이나 철강제의 일차제품, 자동차부품, 자동차부자재, 그 부품, 축전기, 저항기 및 접착회로 등 전자부품류, 가구류와 원구류를 수출하는 업체가 그 대상이 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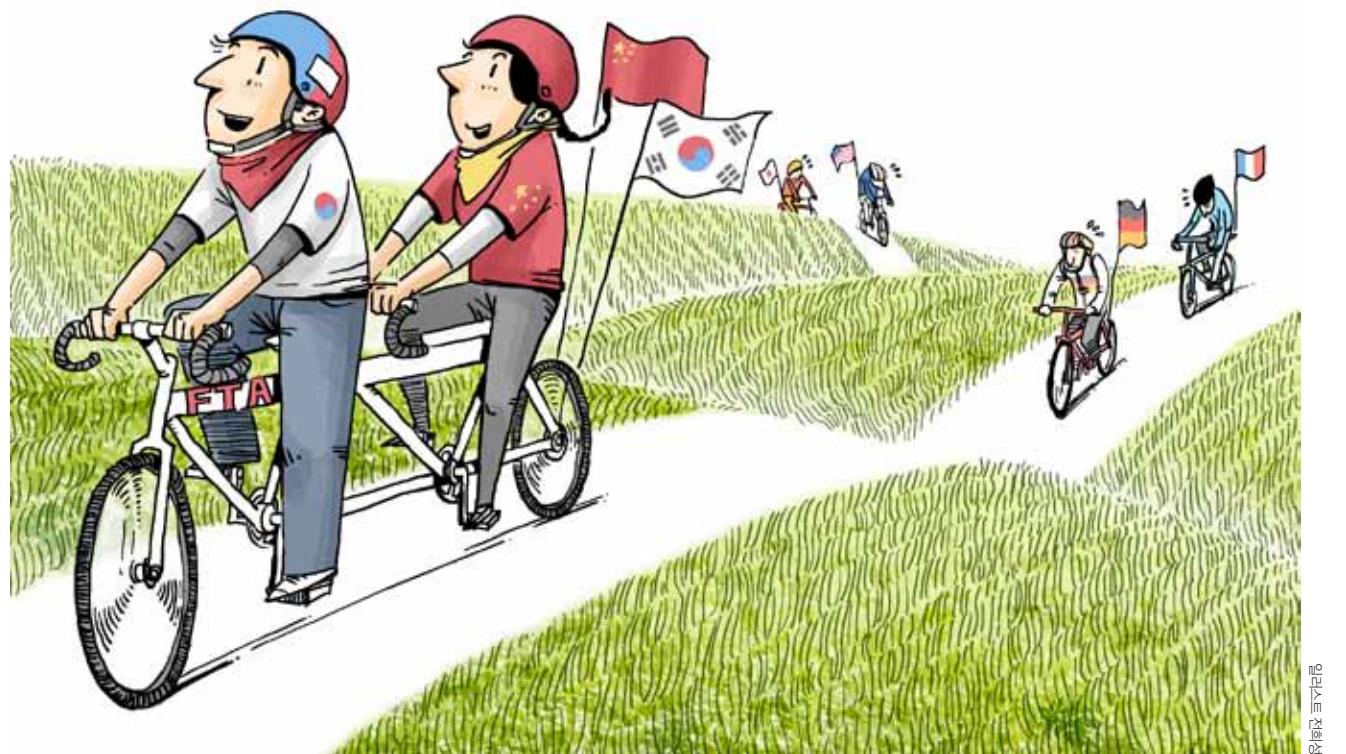


중국 경제와 FTA 협상 전망

2013년,
중국의 '도시화'를
주목하라

2012년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이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이제 중국과의 FTA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은 늘 한국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FTA 또한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2013년 중국 경제의 지형도를 예상해보고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짚어 보자.

글/전병서 경희대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중국 국내외 27개 기관이 전망한 중국의 2013년 경제성장을 예상치는 2012년의 7.7%보다 높은 8%다. 중국기관은 7.8% 외국기관은 8.2%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화와 분배를 강조하는 시진핑 정부의 2013년 중국경제는 2012년을 바탕으로 상승 사이클로 들어설 전망이다.

중국은 현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현지도자는 퇴임 후에도 일정기간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후임 지도자에게 선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임기 말에 긴축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가 집권하면 약간의 경기부양에도 바로 경기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중국특색의 정치경제학'이다.

2012년은 5년 임기 후진타오 정부의 마지막 해였고 중국정부는 2012년 내내 긴축을 유지했다. 2009년에 30%대였던 통화증가율을 후진타오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 금융위기전보다 더 낮은 수준인 13%대까지 낮추었다. 그래서 2013년 시진핑 정부는 약간의 긴축 완화와 투자를 늘리기만 해도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시진핑 시대 성장 키워드는 '도시화'

중국의 2013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12월16일 끝났다. 2012년과 같은 '안정 성장 유지'라는 기조는 변함없었지만 강조점이 달랐다. 구체적인 성장을 목표의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이 향후 집중할 분야를 '신형도시화'와 '분배'라는 키워드로 콕 집어서 강조

했다. 중국은 10년간 연평균 10.7%의 초고속성장을 해온 후진타오 시대와는 달리 시진핑 시대에는 성장률을 한 자리수의 중속(中速) 성장으로 낮추는 대신 분배개혁을 강조했다.

분배개혁의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2013년 3월에 정식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주고, 중산층을 키우고, 고소득의 계층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시대 국무원을 책임질 총리, 리커창은 "미래 10년 중국의 성장엔 진은 도시화"라고 선언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51% 이지만 정식으로 호적이 도시로 등기된 인구는 35%선에 불과하다. 세계주요국의 도시화 역사에서 보면 도시화율이 30~70%인 도시화 중기단계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 소위 메트로폴리스가 100개가 넘는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도시화다. 매년 서울만한 도시가 하나씩 새롭게 생기고 있다.

한국은 지금 수출의 3분의 1, 한국전체 무역흑자의 2.5배를 중국에서 벌고 있다. 대중국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미래 10년은 중국의 '도시화 경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부동산과 가전, 가구, 소비재산업의 동반성장을 가져온다. 집, 차, 패션, 먹거리로 이어지는 중국의 '도시화 경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해야 2013년 이후 한국경제의 방향도 제대로 짚을 수 있다.

시진핑 시대 한·중 FTA 협상 속도낼 것

시진핑 정부의 또 하나의 큰 그림은 위안화 국제화와 산업구조개편이다. 3조2,000억 달러의 천문학적 외환 보유고를 중국 내에 운용할 시장이 없어 미국의 채권과 금융자산을 사고 있는 중국은 금융통화정책이 벼랑 키의 입에 좌우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의 홍수에 최대 피해자가 바로 달러 보유고가 가장 많은 중국이다. 제조가 아무리 강해도 금융이 약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2020년을 목표로 위안화 국제화와 상해금융중심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아세안과 무관세협정을 체결하고, 공업화가 뒤진 중국이 공업화 선진국인 일본, 한국과 FTA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물경제에서 10~20년 손해

를 보더라도 아시아에 위안화 경제권 건설을 위한 장기전략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10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에서는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전체를 둑어서 보면 중국에 득이 되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FTA허브 구상은 동서남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 남쪽으로는 중국이 먼저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FTA인 중·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동쪽으로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구상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의 FTA를 그리고 있는데,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에너지 확보와 변경무역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짐을 이용해 러시아와 모종의 연결고리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개별국가와의 FTA 득실보다는 FTA 글로벌허브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이 포함된 한·중·일 FTA보다는 한국과의 FTA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과 먼저 체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효과적으로나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으로 한·중·일 3국 간에 미묘한 국제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일본을 끌어들이려 해 단기간 내 일본을 포함한 3자 FTA 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후진타오시대에 시작한 한·중 FTA를 시진핑 시대에는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5~10년의 기간 내에서 보면 중국보다 공업화에 앞선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는 중국의 도시화 가속화로 인한 상품수요증가를 감안하면 득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는 중국의 장기전략을 잘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거래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과 첨단산업까지를 포함한 큰 시각에서 한·중 FTA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한·중 FTA 협상 일지

회차	기간	장소
1차	2012년 5월 14일	베이징
2차	2012년 7월 3일~5일	제주
3차	2012년 8월 22일~24일	웨이하이
4차	2012년 10월 30일~11월 1일	경주

FTA활용 탐구생활

애매할 땐 ‘특례규정’ 활용하라

100만 원에 가까운 스마트폰은 한국산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해외 공장에서 만든 이어폰(5,000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스마트폰은 한국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 규정을 활용하면 예외적으로 이어폰을 원산지 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처럼 보너스로 주어지는 규정들을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글/이민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간접재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개 철강제품이 많다. 철강제품의 경우 사출·단조·성형 후 보관·운송 과정에서 녹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유를 도포한 뒤 납품하게 된다. 이처럼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완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것들을 간접재료라고 한다. 원산지 판정 시 이를 간접재료는 제외되어 된다.

간접재료에는 생산용 재료, 시험용 재료, 설비용 재료 등이 있는데, 생산용 재료에는 촉매제, 용해제, 연료, 에너지,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등이 있다. 한국이 체결한 8건의 FTA 중 한·칠레 FTA를 제외한 7건은 간접재료를 인정하고 있다.

간접재료 유형

생산용 재료

촉매제, 용해제, 연료, 에너지,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시험용 재료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설비용 재료

설비 건물유지보수용 부품·재료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

최근의 TV에는 리모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리모컨은 해외산 저가 제품과 국산품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해외 생산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V는 국내산인데, 리모컨이 외국산이라고 해서 그 TV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경우 주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수량과 가격이 통상적인(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를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하고 원산지 판정 시 제외된다. 단, 대부분의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에서만 적용되므로, (한·EFTA FTA, 한·EU FTA는 제외), 부가가치기준에서는 해당 부속품을 포함해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한·아세안 FTA에서는 제외).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 예시

부속품

전자제품 코드, 담개, 매뉴얼

예비 부분품

에어컨 먼지 수집기, 예비타이어

공구

차량용 잭, 저전거 도구세트

세트물품

컴파스, 자, 디바이더 등이 포함된 제도용구 세트나 가위, 빗 등이 들어 있는 이발도구 세트처럼 서로 다른 품목(세번)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합된 것을 세트물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트물품에 대해서는 세트물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하거나 구성품 각각에 대해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트물품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제품 중 일부가 비원산지 제품이라도 전체 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규정한다. 이는 미소기준과 같은 특례규정에 속하는데, 이도 저도 안 될 때 일종의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규정이다. 한·EFTA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대개 공장도가격 또는 FOB가격(본선인도가격)의 15% 이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자세히\]](#)

세트물품 예시

이발세트(세번 8510호)

전기식헤어클리퍼(8510호), 빗(9615호),
가위(8213호), 브러쉬(9603호),
작물제 타올(6302호)을
가죽제 케이스(4202호)에 넣은 세트물품

제도키트(세번 9017호)

자(9017호), 계산판(9017호),
제도용 컴파스(9017호), 연필(9609호),
연필깎이(8214호)를
인조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은 세트물품



News

정리/이현주 기자



2013년에도 FTA 활성화 위해 정부·관계기관 총력전 기업 FTA 활용도 제고 위해 팔 걷어붙여

FTA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19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관세청·증기청·조달청·지경부·공정위·고용부·농식품부·외교부 등 총 8개 기관별 '2012년 FTA 활용지원 추진실적 및 2013년 추진계획', '2013년 FTA 활용지원 정책 협의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FTA 활용지원 추진계획에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혜제도 개선, 인증수출자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FTA 활용률 제고 등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올해에는 세관·지자체·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별 FTA 활용 취약 산업에 대한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증빙서류 등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 간소화 등 FTA 특혜 수입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자율점검, 세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업의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생신 신청 폭증에 대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농식품 분야의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등을 채용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고용창출지원금을 1인당 1년간 1,080만원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의 교육훈련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수출 및 FTA 원산지 실무' 등 2개 기관, 2개 과정으로 총 70명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식경제부는 올해 미국과 유럽 등에 진출하는 기업 60곳을 FTA 선도 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며 1월 중으로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FTA 사후검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연중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멘토링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자원,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추가 장비나 소프트웨어 없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1,0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FTA체결국 무역정보, 여기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트레이드 내비 미국, 인도, ASEAN까지 서비스 확대

지식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무역정보 제공시스템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or.kr)를 통해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인도, 아세안(ASEAN)까지 무역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지난 12월 16일 밝혔다. 트레이드내비는 HS코드별로 관세율을 비롯해 기술과 환경규제, 국제인증, 수입요건 등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시스템이다. 자체구축 정보와 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트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규제와 마케팅과 같은 최신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경부는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이 늘고 각국의 다양한 무역장벽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누적 사용자수가 29만 명, 페이지수가 59만 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정보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www.tradenavi.or.kr



대학별 FTA 강좌 지원한도 두 배로 늘려 무역 퇴직인력 FTA 전문컨설턴트도 120명 양성

정부가 FTA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연간 한도를 두 배로 늘린다. 또한 FTA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워크숍'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익주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이후 관세혜택 품목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 대미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FTA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FTA 인력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 FTA 강좌에 대한 지원방식을 올해부터 한 학기에서 1년 단위로 개선하고, 대학별 지원한도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무역 분야 퇴직인력을 FTA 전문컨설턴트로 키우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세 차례에 걸쳐 12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들러 그동안 재정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운영하던 'FTA 닥터 컨설팅' 사업을 관세청·증기청으로 이관해 각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계기관 및 시·도 FTA 활용 지원업무 담당자, 기업인, 관세사, FTA 컨설턴트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한·미 투자협력 시대 개막 제1회 한·미 투자포럼 개최

지식경제부는 12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월라드호텔에서 미 상무부 및 한·미 상공회의소, 코트라와 공동으로 '제1회 한·미 투자포럼(Korea-US Investment & Trade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흥석우 지경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타미 오버비 미국상의 부회장 등 한국의 재계 투자협력사절단 및 양국 기업인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바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지에서 최초로 진행된 행사다. 미국은 그간 중국·일본 등과는 투자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으나,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으로 한·미 간 투자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특히 양국 정부와 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일방적인 투자홍보 활동을 벗어나 양국 간 투자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흥석우 장관은 개막사에서 "한·미 FTA를 계기로 그동안 무역 중심이었던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투자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천 지경부 투자정책국장과 스티브 올슨 미 상무부 국장은 양국 간 투자 현황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전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웨니 커틀리가 'FTA 발효 이후 9개월간 투자·무역 확대 성과' 및 'FTA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포럼과 함께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는 IT·부동산개발 등 3개의 미국기업들로부터 총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제를 넘어 문화 경쟁력까지

미리 가보는 FTA 체결국 터키 & 콜롬비아



클래식 음악·인형극으로 세계인 '유혹' 터키

한·터키 FTA는 지난해 11월 22일 기본무역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터키 의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협의를 거쳐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FTA를 통해 더욱 친숙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터키는 한류바람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K-팝 스타들이 쟁기는 투어 콘서트지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터키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많아 형제의 나라라고도 부른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다시 우리나라와의 인연이 이어져 연합군으로서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이런 배경으로 인해 터키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매우 친숙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터키에는 이색적인 축제가 많다. 이즈미르와 이스탄불을 찾게 만드는 축제를 소개한다.



Turkey



국제 이즈미르 페스티벌

Izmir Festival

터키의 이즈미르는 고대 유적지가 그대로 보존 돼 있는 아름다운 휴양 도시. 매년 여름 6월이 되면 이즈미르의 고대 유적지는 클래식 축제의 무대가 되는데,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가 만들어내는 오묘한 분위기가 더해져 축제의 공연이 한층 더 돋보인다. 1986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즈미르 페스티벌은 예술과 역사가 함께하는 환상적인 축제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올해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소 터키 이즈미르

기간 매년 6월~9월 (www.iksev.org)



이스탄불 국제 인형극제

Istanbul International Puppet Festival

이스탄불 국제 인형극제는 터키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인형극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후원 없이 지금 까지 독자적으로 꾸준히 성장했으며, 각국의 유명한 인형극단이 직접 참가해 공연을 펼칠 정도로 인형극에 있어서는 명성이 높다. 올해는 미국, 터키, 스페인, 페루, 프랑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등 각국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스탄불 국제 인형극제는 터키 현지인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최고의 나들이 장소로 알려져 있다.

장소 터키 이즈미르

기간 매년 6월~9월 (www.iksev.org)

2013년 한국과의 FTA 발효가 임박한 터키와 콜롬비아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이국적인 여행지다.

자유무역으로 한발 더 가까워진 두 나라는 향후 무역 교류와 함께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하는 FTA'의 새해 첫 여행지로 터키와 콜롬비아를 소개한다.

글/장현주 기자 사진/한국경제신문



커피와 열정의 나라에서 즐기는 '특별한' 이벤트 콜롬비아

지난해 8월 31일 가서명을 마친 한·콜롬비아 FTA는 향후 양국간 정식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가 추진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남미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카리브해, 서쪽은 태평양에 면해 있다. 국토의 크기는 한반도의 다섯 배정으로 국토의 40%가 산악지대이지만, 평원, 초원,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콜롬비아는 문화적인 열정으로 유명한 나라로 배낭여행자로도 인기가 높은데, 예로부터 문예와 학술이 번영해 수도인 산타페데보고타는 '라틴 아메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렸다. 또한 남아메리카 제2위의 커피 생산량을, 세계 에메랄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커피와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로 통한다. 열정을 가진 콜롬비아 사람들은 연중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인생을 즐긴다. 콜롬비아의 축제는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국가문화정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국가는 이러한 축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축제는 물론 미인선발대회, 가장행렬이 수시로 열리는 이벤트가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바란끼자 카니발

Carnaval de Barranquilla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문명이 모여들 개방적인 항구도시 바란끼자에서 벌어지는 초대형 문화예술 축제로 각종 전통춤을 선보이는 가면 퍼레이드가 대표적이다.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 버금가는 규모의 세계적 카니발 축제로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민 퍼레이드 행렬과 전통음악 콘서트, 카니발의 여왕을 뽑는 이벤트 등 매년 사순절 콜롬비아는 전세계에서 바란끼자 카니발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인산 인해를 이룬다.

장소 카리브해에 인접한 항구도시 바란끼자

기간 매년 2월 말~3월 초(사순절 기간 4일 동안 개최)



콜롬비아 토마토 축제

IV Tomatina Colombiana

토마토 축제는 스페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콜롬비아의 토마토 축제 IV Tomatina Colombiana(토마토 전투)에는 각지에서 몰린 많은 사람들이 무려 10톤이 넘는 토마토를 던지고 맞으며 춤을 추며 거대한 전투를 벌인다. 토마토 '전투'라고 하는 이유다. 과거 스페인 농부들이 농산물 정책에 반대하며 토마토를 내던진 퍼포먼스에서 비롯된 이 토마토 축제는 식용이 아닌 질 낮은 토마토를 사용하는 것이니 '먹는 것 갖고 장난을 왜 치느냐'며 심하게 흥분할 필요는 없겠다.

장소 콜롬비아 보고타 북쪽 수타마르찬
기간 매년 6월 초



FTA
IN



Colombia
IN

한방 의학과 뮤지컬, 화장품을 주목하라 2013년 글로벌 한류 키워드가 궁금해?

세계 각국에서 K-드라마, K-팝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인기는 여전히 뛰어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더 새롭게 진화하는 한류, 2013년에는 또 어떤 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을까?

글/장현주 기자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K-뷰티 열풍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한방 의학 | 문화 상품 그 이상의 한류

드라마 '대장금' '허준' '마의'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드라마의 주요 소재가 '한방 의학'이라는 점이다. '대장금'과 '허준'의 경우 방송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십여 나라에서 방송되며 한류 드라마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덕분에 침, 한약, 한방 치료 등과 관련된 한방 의학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최근 방송되고 있는 MBC 드라마 '마의'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인기 덕분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는 한방 관련 관광코스를 찾는 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일례로, 한약재를 주로 판매하는 경동시장은 가장 인기 있는 한방



한국 한방의학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 한방의료관광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한몫을 했다.

관광코스 중의 하나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 중국 등지에서 한국의 아름다움, 그 중에서도 한방 미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겉만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안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챙기며, 맑고 깨끗한 피부, 탄력 있는 바디라인, 건강한 다이어트 효과 등으로 한방 성형, 한방 다이어트 비법을 찾아 일부러 한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기에 발맞추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한의약 新한류 육성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한·중 FTA에 앞서 의료시장 개방 대응 및 선진국들의 해외의료시장 진출 전략에 대비한 한의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방 의료의 특수성에 맞는 한방의료관광 사업추진을 통해 한방 의학의 한류 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2013년, 한류의 새로운 키워드 중 하나로 한방 의학 한류가 주목받는 이유다.

뮤지컬 | 공연 한류의 본격적인 진화

2012년은 뮤지컬 한류의 원년이라 할 수 있었다. 뮤지컬 한류 열풍이 가장 거세게 불고 있는 곳은 국내 뮤지컬 시장의 2배 규모로, 흔히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뮤지컬 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이다.

2012년 상반기에만 해도 국내 각색 작품인 '쓰릴 미'와 순수 국내창작극인 '빨래' 등이, 하반기에는 '궁' '잭 더 리퍼' '스트릿 라이프' '사랑은 비를 타고' 등이 일본에서 공연돼 큰 인기를 누렸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투란도트' '쿵화별곡' '맘마미아' 등의 뮤지컬로 뮤지컬 한류의 인기를 톡톡히 증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뮤지컬 한류의 인기 요인으로는 다양한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 전개, 박진감 넘치는 안무, 음악과 함께 가수, 배우 등 기존에 이미 한류스타로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다양한 배우 층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안재욱, 초신성 성모, 슈퍼주니어 성민, 카라 박규리 등이 출연한 뮤지컬들이 유난히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

최근 들어서는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공연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아시아 전역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와 '궁'은 각각 뮤지컬로 각색돼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다.

뮤지컬 한류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공연이 직간접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2013년에 일본에서 공연될 작품만 해도 '쓰릴 미' '김종우 찾기' '광화문 연가' '싱글즈' '형제는 용감했다' 등 여러 편이다. 모두 이미 국내에서 그 작품성과 인기가 검증된 작품들인 까닭에 일본 공연계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한국의 문화콘텐츠들, 그중에서도 한류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K-드라마와 K-팝이 그러했듯이, 뮤지컬 한류 역시 더 많은 세계인들을 매혹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 | 이제는 K-뷰티 시대

아시아 각국에서의 한국 화장품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K-드라마, K-팝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류 스타들이 모델로 등장하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넘쳐났다. 그 결과 수출량도 매해 눈에 띠는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었다. 즉,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으로,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이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의 열풍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인기는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최근 한국의 아름다움, 즉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에나 밀러, 우먼 서먼 등의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레 퍼시픽 제품들을 애용하고 있는가 하면, 뉴욕 소호에 위치한 '아모레 퍼시픽 뷰티 갤러리&스파'의 경우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뉴욕의 유명인사들이 즐겨 찾는 뷰티케어 장소로 미국의 유수 언론인 뉴욕타임즈나 NBC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뉴욕 소호에
위치한 '아모레
퍼시픽 뷰티
갤러리&스파'

이는 화장품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의 신비함, 동양의 아름다움에 유난히 많은 관심을 보여 오던 곳인 만큼 동양적 감수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높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의 한방 화장품들에 매혹되는 이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은 K-뷰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협정별로 차이는 있으나, 화장품 관세 인하 및 양허로 보다 경제적인 가격의 화장품 수출이 가능해졌는가 하면, 이른바 한방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 '고가 라인'의 화장품들 역시 같은 이유로 높은 수출단가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듯 아시아와 유럽,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에는 더 많은 나라에서 K-뷰티의 열풍이 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

한국 8위, FTA 필요성 입증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전체 34개국 중에서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순위에 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EU 회원국으로, 국가 간 교역장벽이 없는 EU의 특성상 무역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꽤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글/우종국 기자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표시하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외국 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자급자족도가 높거나 외국 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무역 활성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역 감소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OECD(34개국) 국가들의 무역의존도를 살펴보면 1위는 벨기에로 180%로 나타났다. 2위는 슬로바키아로 160%, 3위는 헝가리로 149%였다. 그 뒤를 네덜란드(4위, 148%), 체코(5위, 145%), 에스토니아(6위, 143%), 슬로베니아(7위, 141%)가 잇고 있다. 한국은 97%로 8위에 올랐다. 9위는 룩셈부르크로 87%, 10위는 아일랜드로 86%다. 상위 10위권에서 한국을 제외한 9개국은 EU 회원국으로 GDP 또 한 1조 달러가 넘는 한국에 비해서 작은 규모다. 경제동맹인 EU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 역내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한편 단일국가로는 경제규모(국가 GDP)가 가장 큰 미국은 무역의존도 2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34위였다. 경제규모 세계 3위인 일본 또한 28%로 33위에 머물렀다.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53%)이 많은 구조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일본은 수출입 규모가 비슷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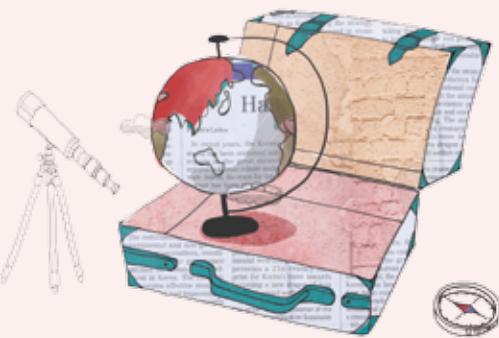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독일(13위, 73%), 멕시코(17위, 63%)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출의존도'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수출활용도'나 '무역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경제규모와 무역의존도를 종합해 고려해 보면 한국에게 무역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자유무역과 FTA의 필요성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

OECD 국가별 무역의존도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GDP	수출	수입	무역의존도(%)
1	벨기에	513,396	464,536	461,844	180
2	슬로바키아	96,089	75,425	78,430	160
3	헝가리	140,303	109,519	100,935	149
4	네덜란드	840,680	655,413	593,963	148
5	체코	215,265	161,708	151,344	145
6	에스토니아	22,225	15,427	16,431	143
7	슬로베니아	49,588	34,702	35,489	141
8	한국	1,116,247	562,462	524,436	97
9	룩셈부르크	58,412	21,816	29,269	87
10	아일랜드	217,669	121,569	66,236	86

*2011년 기준(GDP=IMF, 수출입=한국무역협회)



Reader's Letters

독자의 소리

"회사에서 FTA 활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함께하는 FTA'를 읽으면서 FTA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동원(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함께하는 FTA'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별별랭킹'이에요. 2012년 가장 '핫'했던 FTA 이슈가 정리되어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봤습니다. 2013년에도 FTA 소식들을 담은 12권의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건완(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구청에 들렸다가 우연히 읽게 된 '함께하는 FTA'. 저에게는 유익하고 활용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예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집에서 구독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강예숙(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관세 혜택 순풍 타고 농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라는 기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FTA 발효로 인한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수출이 증가하고 우리 농민들의 행복도 증가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김석준(경기도 구리시 산마루로)

FTA Quiz

한국은 무역 규모 세계 몇 위일까?

다음 문장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답을 적으세요.

FTA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답니다.

① 어려운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도 한국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무역 1조 달러 (수출+수입)를 기록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무역규모 기준 세계 □위로 올라섰다.

(난이도★)

② 2012년 FTA 협상을 시작한 □□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일뿐만 아니라 자리적으로도 가장 근접한 국가로 FTA 체결로 상당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난이도★)

③ 올해 한국은 또 다른 FTA 파트너를 맞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 FTA와 8월 가서명된 한·□□□□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불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의 경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난이도★★)

④ 한·미 FTA로 인해 약 □조 원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간 미국 조달 실적이 없으면 입찰 참여 기회가 없었지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내 조달 실적이 있으면 미국 조달시장 입찰이 가능해졌다.

(난이도★★★)

⑤ 원산지판정 시 부가가치기준에서, 원재료·부품의 일부에 비 원산지(외국산) 물품이 섞여 있더라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면 그 원재료·부품의 가치(가격) 100%를 국내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반대로 원재료·부품에 한국산이 섞여 있더라도 비원산지(외국산) 판정을 받으면 그 원재료·부품의 가치 100%를 비원산지로 반영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난이도★★★★)



당신의 FQ(FTA 지수)는?

- 0개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군요.
- 1~2개 이제 FTA에 흥미를 느끼고 계시군요.
- 3~4개 제법이시군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 5개 당신은 이미 FTA 전문가!

정답(괄호 안은 참조할 페이지): ① 8(6p) ② 중국(7p) ③ 터키, 콜롬비아(9p) ④ 6(28p) ⑤ 룰업, 룰다운(18p)

2012년 12월 17일 미국, 인도, 아세안 무역정보 서비스 오픈!!

무역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or.kr



TradeNAVI는

수출의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을 행상화한 브랜드입니다.



모바일서비스
오픈!!



m.tradenavi.or.kr

미국, 인도, 아세안 무역정보 서비스 내용

- 세율정보 | 기본, FTA, 감면, 할당, 상계 등 HS코드(약 31만개)별 세율 서비스
- 규제정보 | 기술규제(TBT), 환경규제, 해외인증, 수입요건, 전략물자 등 약 2만건의 규제 콘텐츠 구축 및 HS 코드와의 연계 서비스
- 지원정보 | 미국의 국가정보 및 최신 시장 동향정보 연계 서비스, 미국 수출시 꼭 필요한 사전확인 및 준수사항 안내, 한미 FTA 협정문 특별 확인 사안 6가지 설명, 미국 관세청(CBP)의 수입통관절차 상세 설명인도, 아세안 수입통관절차 상세 설명, 인도 관세 계산 시뮬레이션, 역진세율 자동 확인 서비스, 한-아세안 FTA 원산지 관련, 주요 확인 사항 설명
- 업무지원
서비스 | 무역 단계별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무역정보안내지도 서비스, 세계 주요 90개국의 관세율 정보 바로가기 서비스, 43개 무역 유관기관의 무역지원 사업정보 실시간 서비스

■ 규제 분야 및 해외시장정보 참여기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전략물자관리원, KOTRA, K-SURE, KIEP

· 향후 참여기관 및 제공정보 확대 예정

■ 2011년~2014년간 FTA 체결국 및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

· 2012년 1월 서비스 오픈(EU), 2012년 10월 미국서비스 오픈, 2012년 12월(인도, ASEAN) 서비스 오픈, 2013년(중국, 대만, 홍콩), 2014년(일본)